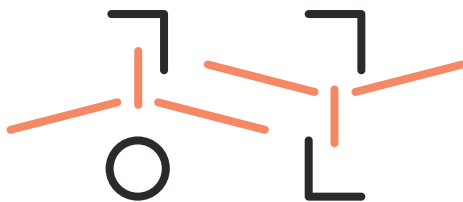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0
11
5 0 9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조국 독립의 열망, 한인비행학교” 특별기획전 들여다보기
10		『코메트』 마지막 결호(缺號)를 찾아서
14	특별기고	한국형 전투기(KF-X), 비상(飛上)의 도약대에 서다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16		정보화시대 대관(大觀) (중령 조재석/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18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9화 조지훈(趙芝薰) 시인 편
24	에어리스트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무장교
30	우리 부대는	방공관제사령부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코메트』지에 담긴 공군의 모습(『코메트』표지 발췌)

디 자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일병 황현동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20년 11월 1일(통권 제509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과장 중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박란, 8급 김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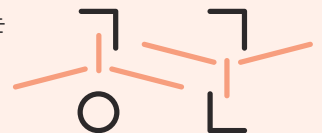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0100450)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40	시인의 책	변시지
42	명상을 말하다	검기 명상
44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르네 지라르의 군인정신
46	트렌드가 보인다	성향테스트가 요즘 성향

48	공군인의 편지	다음에는 그 산에 함께 올라가요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상병 함동경)
49	책읽는 공군	『당신들의 천국』 죽은 세계에서 산 초월을 위하여 (제16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병장 이성산)
50	생각하는 그림	희망의 다이어나이트
52	기준의 기준	먼치킨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조국 독립의 열망, 한인비행학교” 특별기획전 들여다보기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공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월로우스 비행학교의 개교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군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박물관 휴관지침에 따라 이번 전시는 제대로 오픈도 하지 못한 채 관람객을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박물관 관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공군박물관 전시학예담당을 만나 특별기획전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국 독립의 열망
한인비행학교

2020. 09.01
- 11.30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기획전시실



AF : 특별기획전 소개에 앞서, 공군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신영 주무관(이하 문) : 공군박물관은 대한민국 공군 관련 유물 수집, 관리,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1964년,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사기념관을 시작으로, 1985년에 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할 때 공군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각종 항공기와 군사 문화유산 18,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고, 상설 전시 외에도 매년 1회의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최용덕 특별전을 개최했고, '19년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창군 70주년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으로 '조국 독립의 열망, 한인비행학교' 특별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또 올해는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제10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등 총 6건 8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AF : 이번 특별기획전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현재 관람이 불가한데요. 공군지 지면을 통해서라도 독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기획전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문 :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0년 7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월로우스에서 개교한 한인비행학교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40점의 국내·외 신문과 관련 사진, 한인비행학교 출신의 조종사 자격증 등 81점의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군박물관 내 특별기획전과 공군 예하부대 순회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순회전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 공군박물관 전경
▲ 전시회장 입구

AF : 이번 특별기획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요?

문 : 1920년 미국 월로우스에서 한인비행학교가 설립되기 전, 설립되어 운영하는 동안,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는 와중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쩌면 이름조차 남지 않았을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망을 전시회에 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인비행학교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1903년 하와이로 첫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910년대 재미한인사회,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한인비행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문을 닫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 문신영 주무관이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 :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유물이나 자료가 있나요?

문 : 한인비행학교에 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는 1927년까지 발행한 미국 지역신문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WILLOWS DAILY JOURNAL)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9건의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 복제본과 해당 기사 전문을 번역하여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인비행학교에 관한 소식은 신한민보, 독립신문 등에도 소개되었지만, 국외신문에 소개된 것은 월로우스 데일리 저널이 유일합니다. 한인비행학교가 설립하는 1920년 2월부터 문을 닫은 이후인 1921년 6월까지 학교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어 당시 미국인들이 한인비행학교와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AF : 구체적인 전시구성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 : 전시는 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재미한인사회의 흐름과 신한민보>에서는 1910년대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재미한인사회를 다룹니다. 한인단체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한 신한민보에 소개된 항공 관련 기사, 비행기술을 배울 것을 장려하는 재미한인사회의 모습과 레드우드 비행학교 등 미국 내 비행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2부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한 임시정부의 비행대 구입과 비행사 양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임시정부의 모습, 군무부 총장으로 임명된 노백린 장군의 미국 순방 중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후 한인비행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3부 <한인비행학교의 학생과 학교운영>에서는 학교가 문을 연다는 소식에 모인 교회 전도사, 학생, 상인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노백린의 지휘 아래 군사훈련을 받은 모습과 비행기 스탠다드 J-1 구입, 비행교관 초빙 등의 준비를 마치고 7월 5일 개교한 한인비행학교 운영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4부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의의>에서는 한인비행학교의 운영 위기가 발생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한인비행학교 출신으로 1921년 7월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시정부 비행장교 1호가 된 박희성, 이용근에 관한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인비행학교가 우리 공군에 가진 의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한인비행학교에 관한 논문, 국내·외 서적과 신문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과, 스탠다드 J-1에 새겨진 K.A.C. 영문 약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너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전시패널

AF : 이동형 전시패널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네요.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문 : 이번 전시는 이동형 패널을 활용하여, 공군 예하 부대와 공공기관에서 순회전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전시회장이 아닌, 로비에서 이동하며 전시를 보는 관람객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장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시 자료가 사진과 신문 위주의 자료여서, 평면의 밋밋한 패널이 제작되기 쉬웠습니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패널 구성을 위해 사진 SPIN WALL(사진을 앞뒤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든 벽)을 설치하고, 직접 넘겨 볼 수 있는 신문 패널도 제작했습니다. 또, 한인비행학교 관련 서적을 볼 수 있는 작은 아카이브 공간, 영상 모니터 설치로 패널을 다채롭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F : 어떻게 준비한 멋진 전시가 코로나19로 관람객들에게 오픈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생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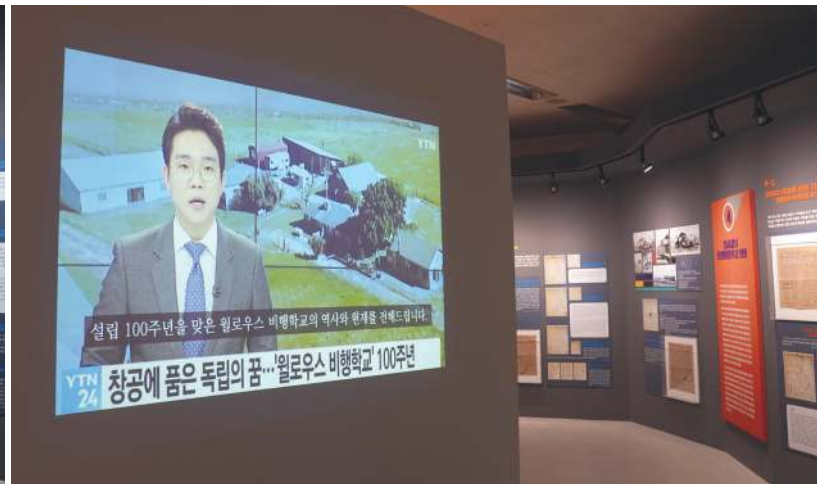
문 : 공군박물관 특별전시실은 대략 100㎡의 공간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영상을 포함해서 80점이 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 수량에 비해 특별전시실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공간에 비해 준비한 전시 패널들이 많다 보니 작업 일정이 늦어져 전시 개막 4일 전부터는 자정 12시를 넘겨 가며 준비했어요. 또 마지막 날에는 전시패널 크기가 잘못 나와서 다시 출력해서 작업한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시 작업 현장에서 함께 해준 사무실 동료들 덕분에 끝까지 전시 준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 한인비행학교 비행기 스탠드 J-1 모형



▲ 전시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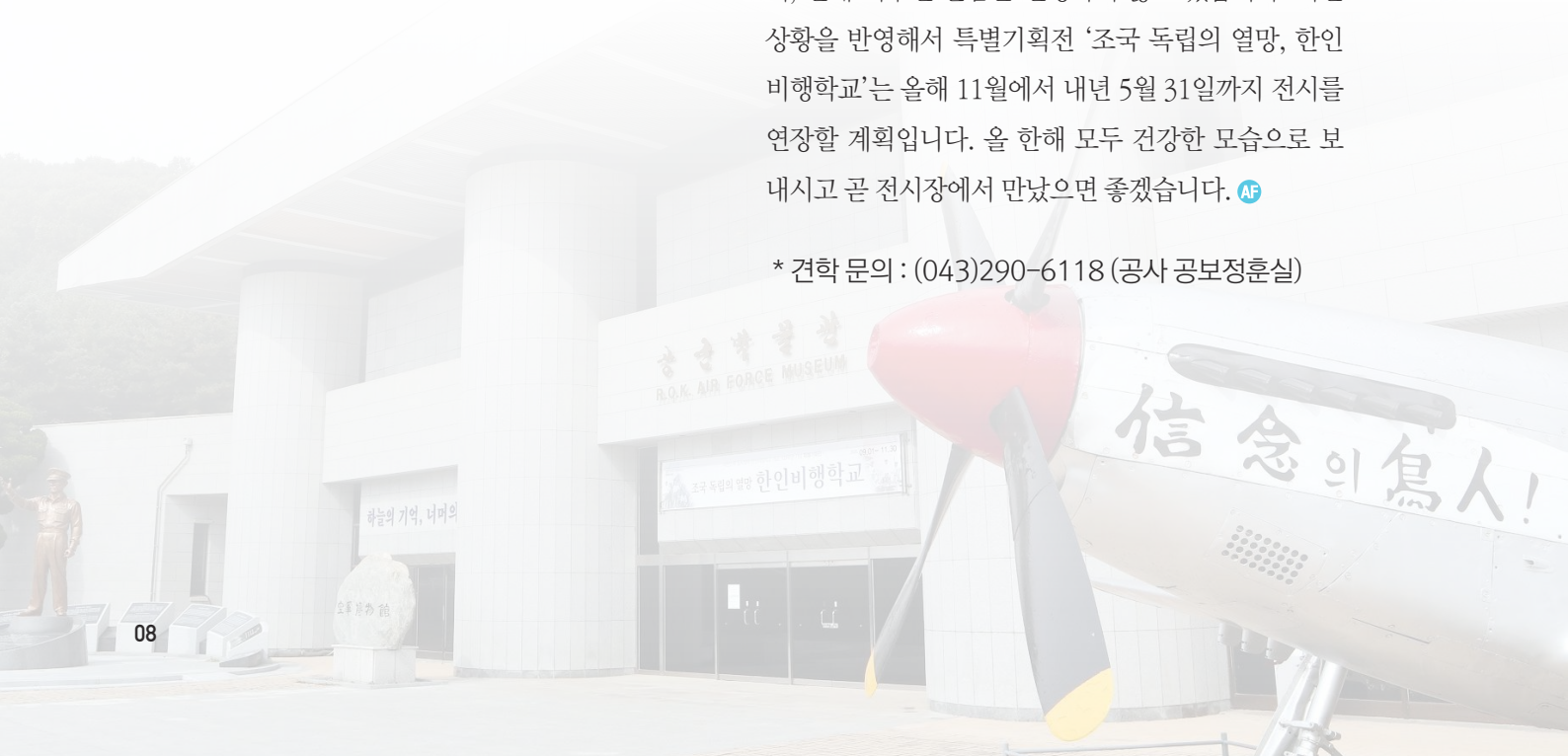
AF : ‘관람객들이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한인비행학교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시대정신, 즉 조국독립에 대한 끝없는 열망과, 독립을 위한 무기로 서 비행기에 집중한 당시 한인들의 선구안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를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한 우리 공군은 100년 전 시작한, 조국 수호의 그 걸음을 이어 걷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AF : 박물관 운영이 정상화되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가요?

공군박물관은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안에 있습니다. 사관학교 안에 박물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방문은 어렵습니다.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rokaf.airfoce.mil.kr>)에서 ‘학교 견학신청’ 배너에 들어가 사전 신청을 하시면 정해진 인원내 한해 오전, 오후 2번으로 나누어 단체관람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박물관 휴관 기간이 길어져, 현재 외부인 관람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특별기획전 ‘조국 독립의 열망, 한인비행학교’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전시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곧 전시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AF**

* 견학 문의 : (043)290-6118 (공사 공보정훈실)





2020년 스페이스챌린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를 대신하여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공군 2020
Space Challenge 2020

SPACE CHALLENGE 2020 온라인 이벤트 9.1. ~ 11. 30.

참여형 콘텐츠

참가자격 || 대한민국공군과 스페이스챌린지를 사랑하는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음)

UCC 공모전

스페이스 UCC 챌린지

9. 1.(화) ~ 10. 31(토)

스페이스챌린지 종목 중 1개 또는 '비행기'
커버댄스 미션을 본인이 수행하는 1분 이내 영상



사진 공모전

스챌의 추억

9. 14.(월) ~ 10. 31(토)

과거 대회 참가 사진과 사연,
자신만의 개성있는 제작 기체 사진 등



퀴즈 이벤트

유퀴즈 온더 스텔

11. 2.(월) ~ 11. 30.(월)

스페이스챌린지 관련 퀴즈 3문항



공군 제작 콘텐츠



**'말이야'가 찾아가는
스챌 명문교 탐방 브이로그**
10월 1주

본선 우수단체상 대회 수상에 빛나는
학교의 종목 출전 비법 전수!
유튜브 '말이야와 친구들' X 스텔 환상의 콜라보!



스챌 탐구영상

10월 3주

스페이스챌린지의
역사, 종목, 규모 등에 대한 소개



스챌의 추억 온라인 사진전

11월 2주

'스챌의 추억' 응모 사진 중 우수작,
대회 역사자료 등을 화보 형식으로 온라인 전시



상품 안내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15명



캐릭터 무선충전 탁상시계 100명



고급 텀블러 50명



스페이스챌린지 종목 규격 드론 300명

상품은 사진과 동일한 제품이며, 콘텐츠별 성격에 따라 추첨, 우수작 심사 등을 통해 이벤트 종료 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참여형 콘텐츠에 중복 참여 가능하나, 1인당 최대 1개의 상품만 지급합니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별도의 상장 없이 상품만 지급합니다.

이벤트 참여방법이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스페이스챌린지 홈페이지 공군 인스타그램 공군 유튜브 를 확인하세요!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군 스페이스챌린지'

주최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코메트』 마지막 결호(缺號)를 찾아서

『코메트』 ‘comet’, ‘혜성’을 뜻한다. 순 우리말로로는 꼬리별.

책 이름이 조금 생소한 독자분들이 계실지도. 『코메트』는 6·25전쟁이 한창일 때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펴낸 공군의 기관지이다. 지금 읽고 있는 월간 『공군』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잡지는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60년대까지 총 49권이 발간되었다. 그 중 올 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코메트』 45호! 마지막 결호(缺號)를 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1950-60년대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원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쟁 중에 발간되었기 때문일까, 공군에서 소장하지 못한 원본들이 꽤 많았다. 공군지담당이 되었다는 것은, 『코메트』담당이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대방동 공군본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코메트』를 발견한 한 공군지담당 장교의 노력을 시작으로, 많은 후배 장교들이 『코메트』원본을 찾아내어 공군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보물을 찾듯, 퍼즐을 맞추듯, 공보정훈실의 여러 장교들은 전국의 도서관과 고서점에서 결호를 찾아 스캔을 뜨고 내용을 정리했다. ‘코메트 결손호를 찾습니다’ 포스터를 제작해 공군지에 실기도 했고, 직접 고서점 동호회에 나가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45호를 제외한, 『코메트』 전 호는 2019년 공군 E-Book 자료관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코메트』 한글화 번역사업을 진행하면서도 45호라는 숫자는 늘 허전함 그 자체였다. 번역사업 목록에 유일하게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코메트』에 실린 문학작품을 정리해서 <공군이 남기 우리 문학>이라는 코너도 연재하고 있는 터라, 결호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실렸을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발로 뛰어 찾기에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따랐다. 그러던 지난여름, 마지막 결호는 정말 ‘혜성’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역사학 공부를 위해 위탁 교육을 나간 한 정훈장교 선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학교 도서관에 『코메트』가 합본되어 비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결호 45호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선배에게 부탁하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였을까? 선배는 카톡으로 『코메트』 마지막 결호 45호의 표지를 보내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풀리자마자 연세대로 향했다.

AF 정말 혹시나 했는데, 마지막 결호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나왔네요. 『코메트』를 어떻게 보게 된건가요?

고낙일 소령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어느 날 학술정보원의 참고자료실에서 과제를 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책장 사이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낯익은 잡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월간 『공군』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과월호가 몇 호까지 있는지 찾아봤어요. 2020년에서 시작한 과월호 찾기는 1990년, 1980년을 지나 1960년대의 『미사일』, 그리고 1950년대 『코메트』까지 이어졌습니다. 놀랍고 반가웠고요, 무엇보다 70여 년 동안 공군의 역사를 잘 보존해준 연세대 학술정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F 『코메트』를 주제로 논문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코메트』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고낙일 소령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네요. 『코메트』에는 공군 선배 전우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공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마음을 지키지 못한(!) 편집장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스트레스도 남겨져 있고, 지금의 눈높이에서 보면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글도 있고요. ‘『코메트』는 ___ 이다’를 채우는 것이 제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코메트』는 공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기관지와 무엇이 다른지, 나아가 『코메트』에 담겨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①

②

①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외부 전경

② 『코메트』는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 Research Commons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다.

③

③ 책장에 비치된 『코메트』 합본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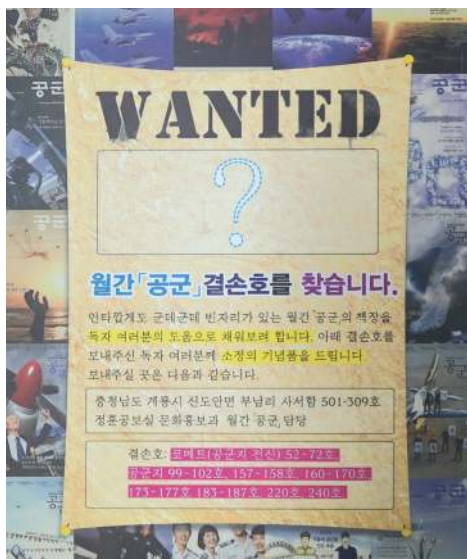
④ 『코메트』 45호

AF 연세대학교에서 공군에서도 보유하지 못한 『코메트』 45호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고서적 수집 및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손민경 주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고서를 포함하여 약 220만 책의 장서와 연속간행물 17,000여 종, 전자저널 10만여 종, 전자책 50만여 종, 학술 데이터베이스 200여 종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학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속간행물 『코메트』의 경우 1950~60년대 자료이지만 이후 발행된 『공군』지와의 자료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연속간행물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코메트』자료의 서가 위치에서 최근 발행된 『공군』지까지 이용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AF 공군 50~60년대 기관지인 『코메트』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소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민경 주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은 대학 내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과과정을 지원하고 학문 탐구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학문 영역별로 균형 있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유료로 자료를 수집하는 ‘구입’, 비매품 자료나 기관 발행 자료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기증’, 주요 기관과의 ‘교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메트』책자 표지에 기증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료는 기증으로 입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AF 『코메트』 외에도 소장 중인 공군 기관지나, 이외 기타 군 관련 서적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손민경 주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서는 자료 형태와 주제 분야에 따라 각 자료실에 분산 소장되어 있습니다. 『코메트』는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 Research Commons 자료실에 소장 중입니다.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 『미사일』, 『공군』지 외 육군, 해군 관련 잡지를 소장 중이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학술정보관 5층 Research Commons 자료실에는 『코메트』뿐만 아니라 『미사일』, 『보라매』, 월간 『공군』까지 합본되어 비치되어 있었다. 공군에서 소장하지 못한 『공군』 99호, 101호도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신기한 것은 육·해·공군 중 공군의 기관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교에 기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70여 년 동안 공군의 역사를 잘 보존해준 연세대 학술정보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에 연세대에서 찾은 『코메트』 45호를 포함하여 『코메트』 46호~49호, 『미사일』 전 권은 현재 한글화 작업 중이며, 2021년에는 공군 E-Book 자료관(www.afzine.co.kr)을 통해 번역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AF**



① 2011년 8월호(398호) 뒷표지에 실린 포스터

② 공군장교회 회지로 추정되는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KF-X), 비상(飛上)의 도약대에 서다

글쓴이

(현)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현)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수료



현대전의 중추를 담당하는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꼽힌다. 최고 수준의 항법·항공전자·무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랩터) 스텔스기에는 ‘슈퍼파워’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러시아와 중국, 유럽 선진국들의 전투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 경쟁은 총합적 국력의 각축장이자 미래 군사력의 판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20~3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이뤄진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웬만한 나라는 엄두를 내기 힘든 도전이다. 최소 10년 이상 수조 내지는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 투자를 비롯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년 넘게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끝에 F-22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예산과 기술적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완성된 전투기의 성능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개발국이 손가락에 꼽히는 현실이 두터운 장벽을 실감케 한다.

우리나라가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한 도약대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형전투기(KFX)의 시험용전투기(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간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훈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한지 근 20년 만의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완성되면 5년간 수백 차례의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120여 대가 순차적으로 양산돼 영공 수호에 나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개발비(8조 8000억)를 포함해 총 18조 8000억원에 달한다. 무기 획득 사업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KFX의 개발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무모한 도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착수 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에이사(AESA) 레이더 등 핵심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동체 설계 제작과 통합전자전장비 개발 등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떨쳐내고, 주요 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속속 성공함으로써 KFX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지금도 KFX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쟁 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져 전력 증강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산 대수를 축소하고, 외국 전투기를 도입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X 개발이 국익 차원에서 ‘일거다득’이라고 필자는 본다. F-4·F-5 등 노후 기종의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대 후반이면 우리 공군은 적정대수(430여 대)보다 100여 대나 적은 전투기를 운용해야 한다. 그 공백을 외국 기종으로 메우면 초기 비용은 KFX보다 덜 들겠지만 운용유지비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들의 정비 및 성능개량 비용은 갈수록 치솟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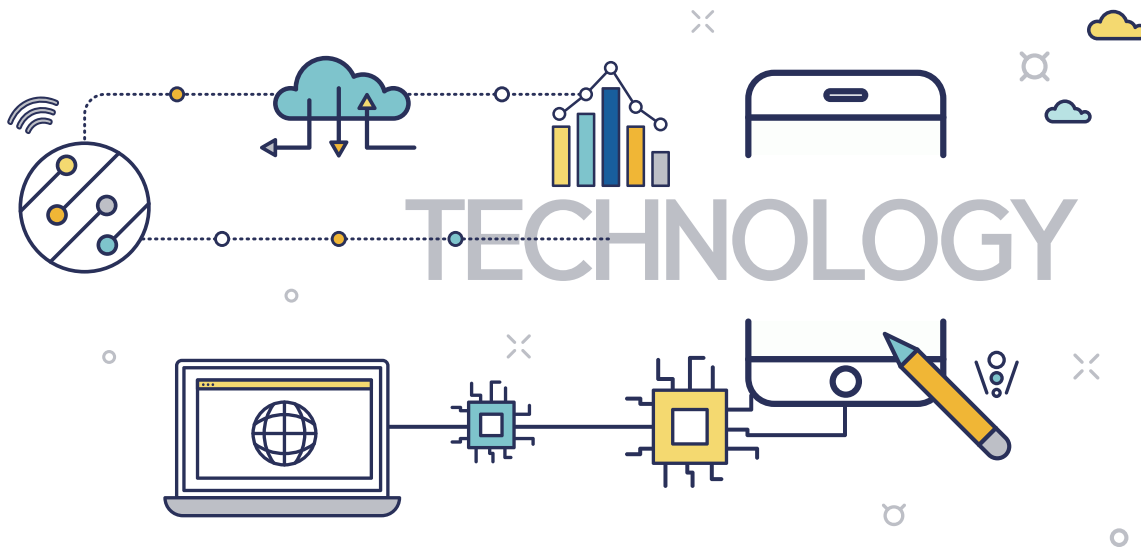
KFX가 도입되면 운용유지 예산 절감과 정비 소요기간 단

축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선진 기술력은 한국형 스텔스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직결돼 미래 공군력 건설과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출 시장도 충분히 노려볼만하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스펙’을 갖게 된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리 공군의 주력이기도 한 F-16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동급 전투기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X의 ‘가성비’를 극대화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항공산업의 총아인 전투기 개발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촉매제이기 때문이다. 파생 기술의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KFX가 안보의 중추이자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AF

정보화시대 대관(大觀)



‘정보화시대’는 시대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였다. 그러나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출간, 이 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국이 있던 2016년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기존 ‘정보화시대’가 누리던 독점적인 지위를 빼앗았다. 이런 시대적 변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보화(情報化)란, ‘정보로 만들다, 정보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 간다.’는 의미로 1970년대에 등장했으나, 1980년 ‘제3의 물결’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 정보 체계·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시대 용어’는 이어 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설명에도 계속 언급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보화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의 토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진입과 정착에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정보화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다. 정보는 정보체계를 통해 대량으로 수집 및 처리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빛

의 속도로 유통된다. 따라서 정보의 값어치, 목적에 맞는 활용, 안전한 보관과 유통 등 정보화의 모든 단계에 사회적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가치는 증가하나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제정됐다. 이는 정보화의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 구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학습에 필수 재료인 빅데이터 구축 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화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수단 마련과 함께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은 필수적이다.

다음은 **정보의 이해 능력 보유**다. 농경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 이동이 적어 직접 체험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익혔으며, 문자 이해를 위해 ‘문맹 퇴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는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직



접 생산,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체계 활용 능력은 기본이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도 필요하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증가한 반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감소해 이제는 단순한 문맹 퇴치를 넘어 정보의 해독능력이 요구된다. 생소한 정보의 이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동영상은 정보 해독능력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당연히 인재의 개념도 달라졌으며 조직에 필요한 인원 선발과 활용 시 직무능력 검증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은 정보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발전이다. 정보화시대 이전의 법규는 ‘물(物)’에 기반한 ‘물품·물리적’ 용어로 표현된다. 그러나 정보는 형태와 부피가 없고 지리적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해, 기존의 법규는 규율의 범위가 무형의 영역으로 확장된 정보화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에 기존의 전쟁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쟁법은 속지(屬地)주의, 전투

원이 대면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지형적인 제약이 없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투원이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법을 개발하고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며, 문화적 요구에 부응한 기술이 발명을 선도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조류인 정보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결과제를 해소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의 저서 『전쟁-반전쟁(War and Anti-War)』의 서문에는 ‘제3의 물결’이 발표된 1980년부터 미군이 정보화시대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쟁 형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우리 군(軍)도 정보화에 대한 신뢰 구축과 이해, 제도 발전을 통해 정보화시대의 내실을 다져야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9화 조지훈(趙芝薰) 시인 편

고별(告別)¹⁾

-전몰자가 부르는 노래

한 치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다.

그 피가 스며드는 매마른 황토,
아 우리의 조국이여!

그 흙에 뿌리 박았으매
그 피를 마시리니

초목인들 어찌 이 환난의 역사를
두고 두고 얘기하지 않으리오.

년령은 오직 핏빛으로만 감기리라.
이는 덧없는 세월의 크나큰 맹세로다.

아아 내 어머니 나라를 버리고
어디에 우리 영혼이 설곳이 있으랴

사랑하는 조국의 산하여
우리는 젊은 영혼을 온전히 불태웠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품에
영원히 잠들기 위해서…….

묘목도 비석도
차라리 세우지 말라, 우리 무덤엔
철따라 들꽃이 피고
이름없는 새들이 우즈지리니

흙으로 도라간 우리 뼈는
그대로 조국의 거름이 되리라.

영광 있거라 조국이여
아 내 어머니 나라여
아내와 아들 딸의 나라여
벗과 스승의 나라여!



『코메트』 제27호(1957년)
표지 및 시 원본

1) 이 시는 조지훈 전집의 시편 중에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 제목 아래에 수록되어 있다.

조지훈 시인은 공군작가단인 ‘창공구락부’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직품활동을 하면서도 활발하게 종군작가의 일원으로서 육군과 공군의 최전선을 누비며 활약했다. 1952년부터 1963까지 공군 기관지에 시, 산문, 군가 가사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시에는 「Follow me」(『창공』, 1952년), 「전선의 서」(『공군순보』 제16호, 1952년), 「Z환상」(『창공』, 1952년), 「마음의 태양」(『공군위클리』 1953. 3. 23), 「고사」(『코메트』 제13호, 1954년), 「이력서」(『코메트』 제14호, 1954년),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공군위클리』 100호, 1955년), 「고별」(『코메트』 제27호, 1957년), 「비가 나린다」(『공군』 제77호, 1963. 8. 1) 등 10편과 산문에는 「방황하는 시정신」(『창공』, 1952년) 1편과 군가 가사에는 「조종사의 노래」(1951), 「은익의 노래」(1951년), 「제10전투비행단가」(1954년), 「정비사의 노래」(1971년) 등 4편이 있다.

전선(戰線)의 서(書)²⁾

생명이란 진실로 내 지낸날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노라.

총알이 옆구리를 꿰뚫어도 총알이 가슴에 박혀도 불타는 생명의
고(庫)집 그 오묘한 세포 속 구석구석이 자리한 영혼을 찾듯이
명중하기 전에는 오직 적진으로 적진으로 달리는 부르짖음이 있을 뿐,

아 주검을 홍모(鴻毛)에다 비긴 자에게만이 생명은 이렇게도 악착한 것이었노라.

포탄의 태풍이 마을을 걷어가버린 뒤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개 답소리조차 그친 마을에

오곡이 제대로 익어 제대로 썩을지라도 비바람을 무릅쓰고
산골짜에서 호곡(號哭)하며 풀잎으로 목숨을 이르는 백성들,

하늘이 계시하신 그 의로운 눈물 때문에 짐승과 같이 방황하여 오히려 욕되지 않은 것

이 악착한 생명을 깨닫는 자만이
주검이란 진실로 삶을 위하여 존재함을 알리라.



『공군순보』 제16호(1952년)
표지 및 시 원본

2) 이 시는 1959년 시인의 시집 『역사앞에서』에 수록되어 있다.

※ 지면에 소개된 시는 당시 잡지에 실린 원문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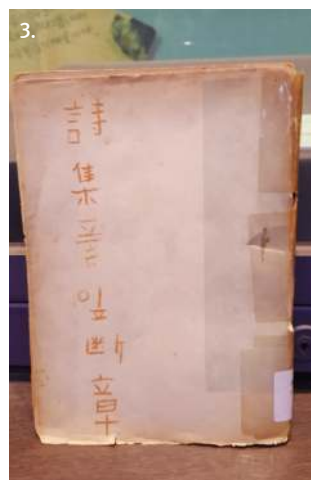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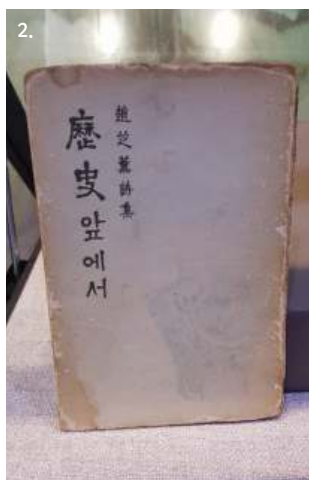
조지훈 시인

조지훈(趙芝薰) 시인(본명 東卓, 1920-1968)은 젊은시절 필자에게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각인되어 있다. 6·25전쟁 당시 공군작가단인 ‘창공구락부’의 부단장으로서 격전지와 전선을 오가며 많은 작품들을 남겼으며, 짧은 생애에도 『청록집』(1946), 『풀잎단장』(1952), 『조지훈 시선』(1956), 『역사앞에서』(1959년), 『여운』(1964년) 등 시집과 『시의 원리』(1953) 시론집과 『시와 인생』(1959) 등의 수상집 그리고 『지조론』(1962), 『한국문화사서설』(1964) 등 사상집과 한국민속학과 관련한 방대한 저술들을 남겨놓았다.

19살 나이에 등단작품인 「고풍의상」과 함께 『문장』(1939)지를 통해 추천된 「승무(僧舞)」는 잊혀져가고 사라지는 민족정서와 미(美)를 한폭의 그림처럼 시로 담아냈다. 그는 어려서는 조부로부터 한문 고전을, 청소년기에는 서구의 문학작품과 고전들을 섭렵하고, 한용운 시인 등 망국시절의 애국지사와 지성들로부터 민족정신의 세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말 일제의 탄압 대상이었던 조선어학회에서 그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원으로서 활약하다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 창살 없는 창살 속에 갇힌 식민지 청년의 울분과 절망을 「동물원의 오후」에서, “사방에서 창살틈으로/이방의 짐승들이 들여다 본다.//“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속삭이는 소리”라고 읊고 있다.

조지훈 시인의 시집

1. 시의 원리
 2. 조지훈 시인의 역사앞에서
 3. 조지훈 시인의 풀잎단장
- (지훈문학관 제공)



민족정신에 대한 그의 신념은 잃어버리고 잊혀져가는 우리 핏줄에 흐르는 정신을 되찾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론에서 “나는 거의 열광적으로 우리의 풍토에, 예술에 황홀과 경이의 눈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적 태도는, 민족의 오래된 정서인 꿈과 힘의 미학을 되찾지 않고는 민족정신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확신과 일맥상통하였다. 그는 한국예술의 원형을 힘의 예술, 꿈의 예술, 슬픔의 예술, 멋의 예술 등 네 가지로 파악했으며 한국예술의 방향을 “여기서 우리는 당면한 예술문화 건설의 지향을 찾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꿈의 예술의 창조적 계승으로서 새로운 르네상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힘과 꿈의 합일에서만 슬픔과 멋의 예술이 지닌 약점을 지양할 수 있으며, 이로써만이 민족예술 당면의 과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종군문인단 시절 조지훈 시인 뒷모습(지훈문학관 제공)

그는 우리 민족의 민속학을 깊이 공부하고 민족문화의 핵심들을 포착했다. 해방 후의 좌우분열과 전쟁과 전후 자유당 독재 정치 등 굴곡은 그를 더욱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나서게 했다. 민족정서의 부양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일제의 열등사학 교육에 의한 자조자학증과, ‘과학’과 ‘민족’의 가면을 쓰고 ‘내용은 사회주의, 형식은 민족적’으로 꾸민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격했다. 그런 만큼 그는 방종을 경계하고 썩은 권력과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질타하였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 할 수 있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했다. 아호인 ‘지훈’을 필명으로 여겼던 시인은 역경에 처하거나 홀로 있을 때에도 더욱 높은 절개를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충성의 개념은, 군주나 권력도 아니요, 파벌을 초월한 조국에 바치는 정성으로 보았다.



지훈문학관 내부 조지훈 시인 흉상
(지훈문학관 제공)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를 살펴야 한다.

(『지조론』, 『새벽』 3월호, 1960. 2. 15)



지훈문학관 현판
조지훈 시인 부인 김난희 여사의 친필로 만들었다.

올해는 조지훈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필자의 방문을 맞이해준 지훈문학관 양희 관장에 의하면 지훈문학관은 매년 예술제를 열고 있으며 산골 오지나 마찬가지로 지역에 위치하였음에도 매년 2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 문학관을 찾는다고 하니 시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아닌 것에서 찾은 나의 생명이 곧 바로 시였다”고 토로한 시인은 군과 특히 공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으며 “시인의 군인수련과 군인의 시적 체험은 한 민족의 건전한 문화창조의 태반이 된다”고 하여 자유와 민족문화, 그 정신을 수호하는 군대의 역할에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중에 국민에게 호소하는 듯한 그의 시 「마음의 태양」(『공군위클리』 1953)에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그 속에 높은 녀를 살게 하라.”는 구절은 절망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와 바람을 담고 있다. 시인의 시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청록집』 발표 이후 종군시편, 저항시편, 고담한 시세계 등 “방황에 가까운 편력”을 거쳤다 자평하며 말년의 시세계의 전형으로 「혼자서 가는 길」을 스스로 꼽았다. 시인의 시적 귀로에서 맞이하는 비, “칠색 무지개를 놓으려/여기 포근히 비가 나린다.”(「비가 나린다」, 『공군』 제77호 1963)의 그 ‘비’에 이 땅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시인의 애절한 정서와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다. AF



조지훈 시인 생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2020

DEFENSE & SECURITY EXPO KOREA

2020. 11.18^{wed} - 21^{sat}

KINTEX HALL 7-8 홀 및 야외전시장

Business Day : 2020.11.18(수) ~ 20(금)

Public Day : 2020.11.21(토)

관람시간 : 10:00 ~ 17:00

관람안내 & 입장료 : 공식 홈페이지 참조



www.dxkorea.org



주최 AROKA
대한민국육군협회

후원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Commerce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Administration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기술품질원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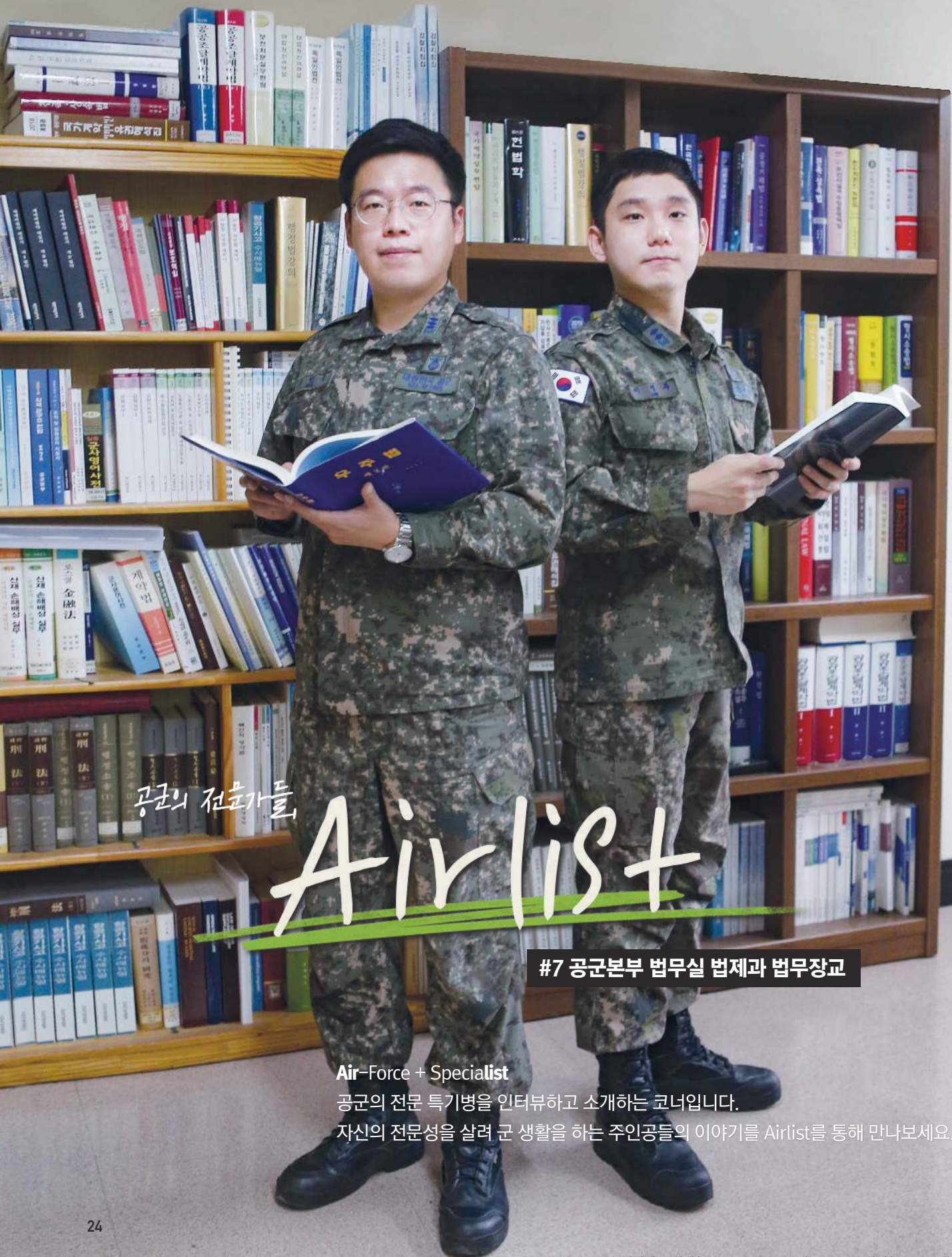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주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DX KOREA
대한민국방위산업전조직위원회

DXK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일관람인원을 통제하오니 관람희망시 반드시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의 전문가들

Airlist+

#7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무장교

Air-Force + Specialist

공군의 전문 특기병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군 생활을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Airlist를 통해 만나보세요.

법무병과는 대한민국 헌법, 군사법원법 등에 근거하여 군내 사법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담당하면서 법률 분야 전반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군의 법령을 제정하며, 법규의 관리, 징계, 소송 및 배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군에서도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법무병과의 역할은 군내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에서 전성용 (임)소령(진)(법제 및 법령 연구 담당), 이병주 대위(진)(국제법 담당)를 만나 법무장교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AF 공군 법무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전성용 저는 대학 졸업 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126기 정훈 특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정훈실 등에서 3년간 근무를 했어요. 이전의 복무기간 동안 저는 국가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었고, 군법무관이라는 직업이 사명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군법무관으로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군 중에서도 공군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공군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저의 진로 설정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주 저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 영국·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고 병으로 입대하려던 차에 공군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국제법 담당 법무장교로 선발한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약 6년간 외국에서 법률 공부를 했었는데 의무복무를 하면서 법률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방학 중 실무수습 거쳐”

AF 선발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성용 장기 군법무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당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국방부에서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서류전형(자기소개서, 학점 등),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부터 장기 군법무관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군법무관 지원동기 등의 서류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재학 중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방학 중 실무수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군법무관 필기시험도 중요해서 군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변호사시험, 장기 군법무관 필기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필기시험 이후에는 국방 시사상식 내지는 군사법원법, 군형법 등 국방 관련 법령을 공부하면서 면접전형을 대비했습니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국제법 담당 법무장교로 선발”

이병주 저는 지원자격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준비한 것은 없었어요. 공군 장교에 걸맞은 인성, 국가관 및 가치관을 확인하는 면접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AF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병주 2018년에 장교 선발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임관해서 불합격 사유를 여쭙보니 군 계급체계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면접 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이중적 지위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국제법 장교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교로서 군대의 체계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성용 제7회 변호사시험이 2018년 1월 중순에 종료되었는데, 장기 군법무관 전형절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어요. 변호사시험을 마친 다른 동기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할 때 저는 홀로 학교에 남아 도서관에서 책을 보

며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새학기 시즌이고, 대학 새내기들이 들떠있는 상황에서 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AF 입대 후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성용 장기 군법무관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육·해·공군 구분 없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7주 정도의 기본군사훈련,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3주 정도의 직무교육을 받아요.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다른 후보생들과 동일하게 각개전투, 행군, 유격, 사격, 화생방 등의 기본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후 충북 영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로 이동하여 향후 법무관으로서의 수행할 업무인 징계, 군형법, 군행정법, 전쟁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병주 법무장교로서 전쟁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민형사법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어떠한 표적을 타격하는데 법적으로 적절한지, 민간시설인지, 군사시설인지 등을 파악하고 전쟁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용해봅니다. 이러한 분야는 아무리 법률가여도 경험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또, 작전법, 무력충돌법 등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해 접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전법, 무력충돌법 등 일반적인 민·형사법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접해”

AF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병주 저는 국제법 담당으로서 국외판례 연구 및 자료수집, 국제법 검토, 국제협정 및 조약 검토, 국내외 합의서 및 계약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담당의 경우, 미군 법무관과 같이 훈련을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미국 및 국제법에 대해서 접할 수도 있



전성용 인터뷰

고, 국가별로 법 해석이 다른 부분에서 조율할 부분을 찾고 검토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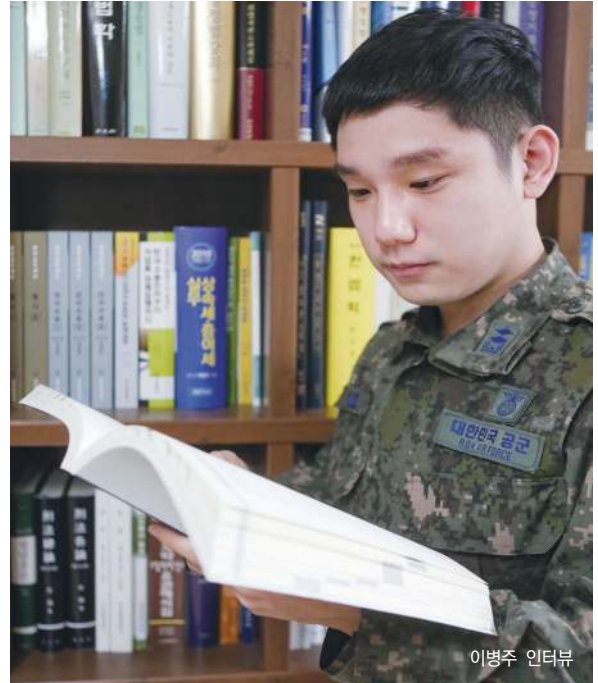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 실시, 공군 소관의 규정, 예규 등에 대한 규정심사 업무도 수행”

전성용 법제과에서는 공군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간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법령해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공군 소관의 규정, 예규 등에 대한 규정심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에서 작성하거나 체결하는 계약서, 국내합의서, 국외합의서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공군의 원활한 항공우주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항공우주법, 전쟁법 등의 연구활동, 이외에도 각종 법 교육과 발표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F 실제로 군법무관 생활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전성용 공군 법무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수사, 재판 등의 군 사법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니 법제, 송무, 징계 같은 업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군대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병주 인터뷰

“국외합의서, 계약서 검토하며 업무적으로 많이 성장”

이병주 우선 6년간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던 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무능력을 키울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국외합의서나 계약서를 검토할 때, 영미법 이외에도 대한민국 법도 함께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법무관들과 이에 대해 토의를 하고, 협력하여 법무검토를 수행할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AF 복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전성용 이전에 예하부대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훈장교였던 제가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훈 특기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만날 때는 공보정훈실이 아닌 법무실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년 변호사들이 쉽게 맡을 수 없는 실무를 다루고 배울 수 있어”

AF 공군 법무관에 지원하게 될 후배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병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법무관으로서 실무를 접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실장님, 과장님들 비롯하여 선배 법무관님들의 지도하에 초년 변호사들이 쉽게 맡을 수 없는 실무를 다루고 배울 수 있었고요. 변호사 자격증 취득은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출발 선상에 있는 변호사에게 군법무관 경험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조 분야에 뒤지지 않는 본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

전성용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군법무관은 군 조직의 특성과 군법무관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어느 다른 법조 분야에 뒤지지 않는 본인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임이 분명합니다.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정말로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군 법무관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공군 법무병과에서 후배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AF

군법무관 모집안내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격

1.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자격 |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2020년 수료 예정자

나. 임관예정일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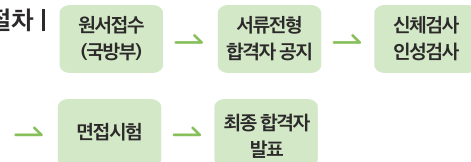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참조

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전형 |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MMPI 검사), 신원조사, 면접시험

선발절차 |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자격 |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

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예정)자

나. 임관예정일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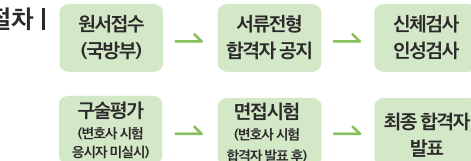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참조

다. 신체조건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전형 |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MMPI 검사), 신원조사, 변호사 시험 성적 활용 및 자체 시험, 면접시험(직무 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 순위 산정, 최종 전형위원회

선발절차 |



모집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를 참고바랍니다

월간「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 안내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공군인의 편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moa5819@af.mil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8급 김모아)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 바탕체
- ☐ 10pt
- ☐ 줄간격 180%
- ☐ 공백포함 1250자 이내
(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

2

책 읽는 공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moa5819@af.mil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8급 김모아)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 바탕체
- ☐ 10pt
- ☐ 줄간격 180%
- ☐ 공백포함 1400자 이내

3

마음의 소리

[월간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응모방법

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
(인터넷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공군'
검색 후 '독자 의견' 코너에 게시)

양식

- ☐ 250자 내외
-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기간 매월 (10일) 까지

입선헤택 공군인의 편지, 책읽는 공군 지면 게시작 / 1등 - **포상금 5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등 - **기념품**
[공군인의 편지 당선 시 수신인 주소로 공군지와 기념품 특별 배송]
마음의 소리 게시작 / **기념품**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 개별발송)

우 리 부 대 는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창공의 눈!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국의 힘
한반도와 KADIZ 영공 방위의 수호자

방공관제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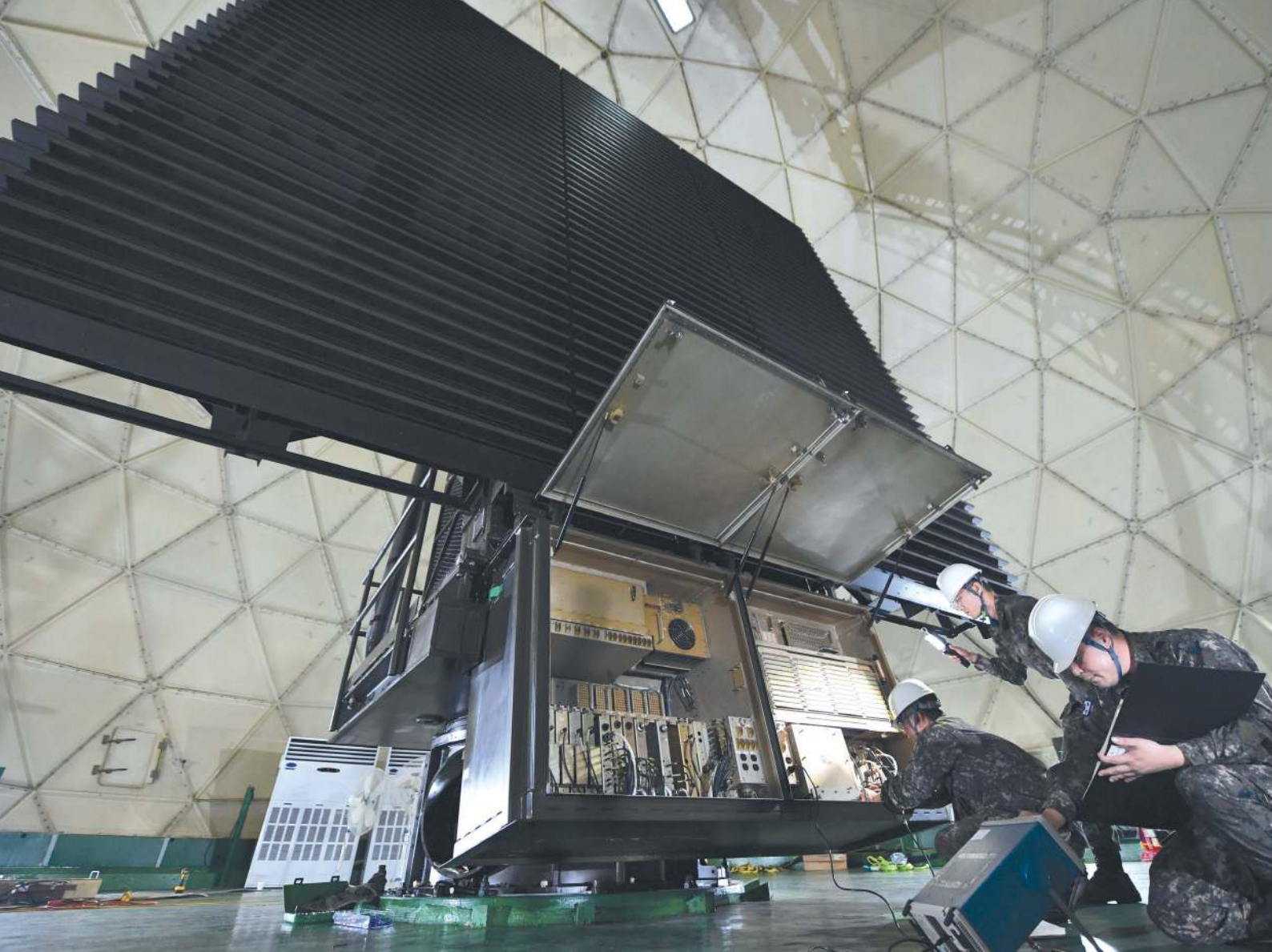
대통령 부대표창 6회, 국방부장관 표창 9회, 합참의장 표창 2회, 참모총장 표창 27회 등 우수한 기량으로 한반도와 KADIZ 내·외곽의 빈틈없는 공중감시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항공작전의 핵심 방공관제 사령부를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활:** 적을 향한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
- **별:** 하늘의 불침번인 방공관제사령부와 4개 전대 및 1개 직할대
- **성벽:** 철벽같은 대한민국 영공 수호 의지
- **전파:** 신속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한 성공적 요격 임무수행
- **스코프:**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

부 대 연 혁

- 1955. 09. 01. 제30비행관제경보대대 창설
- 1957. 07. 01. 제30관제경보전대 승격
- 1963. 09. 10. 제30방공관제단 승격
- 1965. 09. 01. 방공체제 현대화 사업
- 1983. 07. 01. 제31중앙방공통제전대 창설
- 1985. 07. 01. 국내 최초 중앙방공통제체계 1MCRC 전력화
- 2000. 08. 01. 제32중앙방공통제전대 창설
- 2003. 05. 01. 중앙방공통제체계 2MCRC 전력화
- 2008. 07. 01. 제33/34방공통제전대 창설
- 2013. 06. 11. 사령부 승격(제30방공관제단 → 방공관제사령부)



방공관제레이다(장거리 고정형) 점검



제30방공관제단 창단식

“창공의 눈, 조국의 힘” 방공관제사령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이하 방공관제사)는 1955년 9월, 제30비행 관제경보대대로 창설되었으며, 조직이 확대·개편되는 가운데 1957년 제30관제경보전대, 1963년 제30방공관제단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85년 7월, 국내 최초의 자동화 방공체계인 제1MCRC를 구축하고 2003년 5월 제2MCRC를 전력화하며 21세기 작전환경에 부합한 작전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6월 11일, 사령부로 승격되었으며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관제사령부는 조국 영공방위를 위한 경계 작전의 시작인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으로서 공군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결같이 수행해 오고 있다.



고산준봉에 위치한 방공관제사 예하부대



1MCRC에서 근무중인 방공무기통제사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한 공중감시, 조기 경보 및 항공통제 임무 수행

방공관제사 예하 관제부대는 남북으로 거진에서 제주도까지, 동서로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전국의 고산준봉과 도서지역에 위치하며 빈틈없는 영공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2MCRC 작전요원들은 적의 군사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와 KADIZ 주변을 비행하는 모든 물체를 24시간 감시·식별하고 있다. 또한, 방공작전(탐지/식별/요격/격파)수행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위협하는 대상에 실시간 대응하는 중앙집권적 방공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동형 레이더 전개훈련

실전적 임무수행 훈련을 통한 전시 작전 수행 능력 제고

방공관제사는 전·평시 우발상황으로 인한 레이더 운용 불가를 대비해 이동형 레이더 전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동형 레이더 훈련은 대한민국 영공의 감시공백을 없애기 위해 실시되며 훈련 시 특정 지역으로 이동형 레이더를 전개한다. 이동형 레이더 전개는 평시/전시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평시 상황에는 고정형 레이더의 장기간 운용 중단 및 특정지역의 공중감시 강화 필요 시 진행되며, 전시 상황에는 고정형 레이더의 파손 또는 전개 시 지속적인 작전 임무수행(전선이동)을 위해 수행된다.



최우수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 선발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최일선 항공통제 작전요원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대회

방공관제사는 매년 MCRC와 E-737 체계에서 근무하는 방공무기 통제사들을 대상으로 요격통제 능력을 평가하고, 최우수 방공무기 통제사 ‘골든아이’를 선발하고 있다. 대회는 항공기를 통제하는 무기 통제 분야, 항공기 여부를 판단하는 공중감시 분야, 적기와 아군기, 미식별기 등을 구분하는 식별 분야로 구성된다. ‘방공무기통제사’는 조국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격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군의 항공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공관제사령부 전경

미래전장을 선도하는 항공우주통제능력 확보

방공관제사는 지상 공중감시체계인 방공관제레이더와 공중 감시 체계인 E-737을 운용하고, 최신전력인 F-35, F-15K, 공중급유기 등을 활용하여 완벽한 공중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방공관제사령부는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감시권역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원격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차기 지상감시체계를 강화하며, 공중감시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AF](#)





블랙이글스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사전 연습 비행

공군 블랙이글스가 10월 19일(월), 서울 상공에서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 수감

참모총장은 10월 15일(목) 오전 계룡대에서 2020년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등 동시수감 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감했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공군력 육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18전투비행단 대비태세 점검



참모총장은 10월 20일(화), 제18전투비행단 작전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했습니다.

격오지 관제부대 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9월 29일(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동단 격오지 부대인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355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20-2차 전투태세훈련(ORE)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0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4일간 전시전환 절차 숙달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20-2차 전투태세훈련(ORE)을 실시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FA-50 항공기 계획검사 200대 출고 기념행사

제8전투비행단은 10월 6일(화) 부품정비대대 정비 격납고에서 공군 최초로 FA-50 항공기 계획검사 200대 출고 기록을 달성하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10전투비행단

사랑의 헌혈운동

제10전투비행단은 10월 8일(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혈액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10월 7일(수) 유사시 활주로 피폭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항공작전과 신속·정확한 피해복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피해복구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

대테러 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10월 7일(수) 신원 미상자가 기지 내 침입하여 인질을 잡고 폭발물을 소지한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

공군 군악대 위문공연

제19전투비행단은 10월 21일(수) 코로나19 극복과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빅밴드 연주, 퓨전국악, 마술, 중창, 가수 협연 등의 공연 프로그램으로 공군 군악대 위문공연을 실시했습니다. [AF](#)

시인의 책



변시지

황금빛 서정

변시지는 제주를 가장 제주답게 그린 화가다. 최소의 선과 색으로 나무와 바람과 돌담, 조랑말과 까마귀, 하늘과 바다, 심지어 지팡이 짚은 더벅머리 자화상까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화폭에 담아냈다. 채움과 현란함과 일체의 이즘(ism)을 지양하고, 권위와 위세와 호들갑스러움과 엄살 또한 지양한 반면, 비움, 휼, 묵묵, 그리움, 고립, 절망, 기다림 등등을 끝없이 지향한다. 제주의 높고 푸른 하늘과 깊고 푸른 바다에서 지금까지의 상식과 상투적인 빛을 과감히 배제하고 황토와 황금의 작렬하는 빛을 길어 올린 최초의 화가.

1975년, 제주도로 오는데 그때 비행기 위에서 본 제주의 풍경이 바로 황금빛이었다. 나도 그때까지 제주라고 하면 푸름을 떠올렸는데, 석양에 물든 바다나 땅이 모두 황금색으로 변할 때, 풍요로움을 뛰어넘어 경외감까지 느껴졌다. 노란색은 굉장히 화려한 색이다. 화려한 색으로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서는 숙명이었다.(92쪽)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43년부터 작고한 2013년까지를 일본 시절, 서울 시절, 제주 시절(초기·중기·후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화집 『변시지』가 출간됐다. 화집 준비 소식을 바람결에 접한 지 2년 만이다. 곧 나올 것 같던 책이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자 처음엔 조바심을 치다가 나중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편집 과정에 어떤 난관이나 변수가 생겨 수포로 돌아간 건 아닐까 싶어서다. 그만큼 관심이 컸다는 뜻이다. 이렇듯 적잖은 기다림 끝에 나에게로 온 책은 편집부터 작품의 해상도, 작가의 말과 글 어느 하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퍼펙트함으로 보상을 해줬다. 화가의 이모저모를 탐독하는 동안 황금빛 풍량이 나를 덮쳤다. 고작해야 몇 점의 그림에 흘렸을 뿐인 내게 이 책은 거부할 수 없는 침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스승 데라우치 만자로에게 그림을 배울 당시, 난 늘 두 장의 그림을 한 번에 그렸다. 한 장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렸고, 또 한 장은 나의 의도대로 그렸다. 나의 의도대로 그린 그림은 스승에게 인정을 못 받았을 때도 있었다.(61쪽)

일본인 문학생들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되, 개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발적 노력 앞에선 박수를 보내다가, 신체의 일부처럼 등장하는 지팡이를 짚게 된 연유에 대한 언급엔 마음이 밝힌다. 일본 체류 당시 겪은 일하기에 더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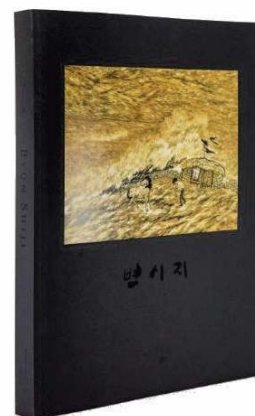
일본 소학교 2학년 시절, 덩치가 두 배쯤이나 크고, 힘이 장사였던 상급생 학생과 씨름대회를 하다, 오른쪽 대퇴부의 관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극심한 통증으로 혼절했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215쪽)

지팡이가 그림에서 갖는 미학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외로움의 극한인가 하면, 노경(老境)의 아름다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나운 태풍에서 보호해 주는 버팀목인가 하면, 자화(自畫)에 있어선 신의 묘수 같게도 비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휘어진 지팡이라니. 하긴 그의 그림엔 수평선도, 돌담도, 소나무도, 까마귀의 부리도, 사람의 등도, 풍랑도, 조랑말의 목덜미도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숙여져 있다. 태양도, 조각배도, 길도, 낚싯대도 그러하다. 여기서 곡선은 유연한 힘을 갖는다. 보는 이로 하여금 풍경 속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 기웃거리고, 드리우고, 올려다보고, 헤엄치고, 짚고, 걷고, 쓸쓸해하고, 웅크리고, 응시하는 등 일체감(一體感)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평면의 소극적 감상에 머물지 않고,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심연까지 동행해 중국엔 입체적 감동에 이르게 한다.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이토록 매혹적이었을까?

작품이 안 되니 술로 배를 채웠는데,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못 살 것 같은 폭음의 세월이었다. 심야에 바다의 자살바위 근처를 배회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신내림 현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서운 열병에도 불구하고, 나는 캔버스와 맞서 싸웠다. 붓을 꺾는다는 것은 예술적 패배를 의미했기에 비수처럼 박혀 드는 고통을 물리치고 붓을 들었다.(83쪽)

칠혹 같은 긴 터널을 지나 오십 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향 제주의 척박한 삶, 역사적 고통에 개안(開眼)한 뒤 제주인이 이상향으로 삼는 이어도를 화폭에 담아낼 수 있었던, 극사실주의와 검은 서정을 지나 황금빛 서정에 도달한 변시지. 초가집도 빼고, 까마귀도 빼고, 사람도 빼고, 빼고, 빼고, 빼고 하늘과 바다만 그린 화가, 그것마저 빼고 배 하나 그려 놓은 화가, 그러다 그마저 빼길 바라던 화가, “그러다가 하나를 넣기도 한” 화가.

제주에 가거든 황금빛 서정에 깃들 일이다. 지팡이에 더벅머리를 한 등 굽은 화가의 일생과 마주할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제주 여정은 충분하므로. AF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제주도 책방카페 <시인의 집> 대표.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명상을 말하다’ 코너에서 명상은 우리가 생활하는 내내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 온 것을 기억하시나요?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면서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명상은 어수선한 가운데 움직이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멈춰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움직이는 시간이 많은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겠지요. 멈춰 있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명상이고, 움직이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 걸으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앉아서 하는 명상만큼 중요합니다. 결국 명상은 앉아 있든지, 걷든지 그 순간의 마음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챙김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몸이 앉아 있든, 움직이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상은 반드시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걷기 명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명상은 뭔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고 남다른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방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이다.”라는 명상 격언이 있습니다. 명상에서의 마음자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명상 따로, 생활 따로”라는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격언입니다. 실제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에서의 마음자세를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필자의 경우에도 점심 식사 후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안방에서 부담없이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걷기 명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

습니다. 그 시간은 거창하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걷기 명상을 통해서 모두 이러한 자기만의 휴식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걷기 명상을 해 본 다음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 ① 우선, 5미터 이상 왕복하여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집 근처의 어린이 놀이터도 좋고, 큰 건물 처마 밑 아니면 집의 거실 또는 안방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런 장소는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 ② 걷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서 있지만 앉아 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눈은 1~2미터 앞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양손은 앞으로 모으거나 뒷짐을 집니다.
- ③ 이제 서서히 걷기 시작합니다. 내딛는 발에 속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끝 지점에 이르면 멈춰 섰다가 뒤로 돌면서 속으로 “뚝, 뚝, 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내딛는 발에 이번에는 속으로 “들음, 내려 놓음”, “들음, 내려 놓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걸어 봅니다.
- ④ 이런 식으로 발의 움직임과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왕복하여 이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이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그 순간의 발의 동작과 느낌을 충분히 알아차

리는 것이 목표이지 걷기 명상 시간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 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최소한 10분 이상 걷기 명상을 한 다음 제자리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알아차린 다음 심호흡을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걸으면서 걷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되면, 그것이 일상생활의 움직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길을 걸으면서 걷는지 알고 있고, 문을 열면서 여는지 알고 있고, 의자에 앉으면서 앉는지 알고 있고, 먹으면서 먹는지 알고 있고 등등. 이런 동작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나 걷기 명상 중에 발의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은 움직이면서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알아차리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몸의 자세와 동작을 취하든 그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마음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것을 대하는 나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여 알아차리기보다는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걷기 명상을 해나감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될수록 우리는 보다 지혜로워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걷기 명상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요?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철학, 군인 정신을 말하다



르네 지라르의 군인정신



욕망에 솔직하라.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라

이런 군대가 이길 수 있을까?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판세를 결정지었다. 일본 해군은 돌이키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당시 수상이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는 한동안 전투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 일본군 내부에서 해군과 육군의 사이가 무척 안 좋았던 탓이다. 도조 히데키는 육군 장성 출신이었다. 경쟁하던 육군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해군은 수상에게조차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도조 히데키는 대본영 해군국(局)에 심어놓았던 스파이(?)를 통해 참패의 규모를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군대가 과연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의 역사에서는 같은 편끼리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흔하게 등장한다. 윈스턴 처칠과 샤를 드골은 만나기만 하면 언성을 높였고, 영국의 몽고메리와 미국 장군들 사이의 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군대는 모두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어떤 단체보다 경쟁과 질투, 반목과 대립이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조직이 군대다. 왜 그럴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

르네 지라르(Rene Girard, 1923~2015)는 이 물음에 답을 주는 철학자다. 그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잘라 말한다. 식욕, 수면욕 같은 욕구는 저절로 생긴다. 우리의 본능인 탓이다. 하지만 욕망은 그렇지 않다.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마음에 ‘심어진’ 것이다. 예컨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싶은 이유는? 남들도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욕망은 나에게 쉽게 ‘전염’된다. 아무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때는 내 욕망도 시들해진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차지하려 다투

까? 이를 손에 쥐었을 때 자신이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듯해서이다. 더 높은 지위, 더 귀중하고 값진 것을 차지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던가. 우리 삶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가득한 이유다. 이렇게 보자면 군대는 갈등이 자주, 크게 벌어질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어 군인이 된 사람은 없다. 남다른 개성을 누리려고 군대에 지원한 자도 있을 리 없다. 군인의 욕망은 대부분 비슷하다. 나라에 헌신하여 명예와 존경을 얻는 것,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된 신분을 누리는 것. 이 모두는 진급에 대한 갈망으로 모아진다. 내가 조직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계급으로 드러날 뿐더러, 진급을 해야 조직 안에서 내 위치가 안정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라

한정된 자리를 모두가 똑같이 바라는 상황에서는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어렵다. 상대의 뛰어남은 나의 못남이 되어 버리는 까닭이다. 상대가 인정받을수록 나는 지위 경쟁에서 밀려날 터다. 따라서 동료는 제쳐버려야 할 적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래서 동료의 실패를 바라기까지 한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는 무능하다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나의 잘못은 애써 감춘다. 상대방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는 가운데 갈등은 커지고, 조직의 문제 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썩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르네 지라르는 상대를 이기고픈 마음부터 솔직히 인정하라고 충고한다. 상대방은 악마도, 무능한 자도 아니다. 나와 똑같은 욕망을 가진 동료이자 경쟁자일 뿐이다. 인간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할 뿐이라면,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욕망을 틀 수도 있다.

이는 무슨 말일까?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저의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松下幸之助, 1894~1989)가 말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다. 경쟁자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길 때는 상대의 성공이 밋고 속상하게 다가온다. 꿈수로 자신을 밀쳐낸 듯하여 화가 솟구칠지도 모른다. 반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존경할 만하다면 어떻게?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그럴만하다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다짐을 가슴에 새겨보라.

“당신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나는 많이 부족해요. 당신이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힘써 돕겠습니다.”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미워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진급하고 성공하도록 돕겠다는 이를 멀리할 까닭은 더더욱 없다. 자기를 낮추며 기꺼이 상대를 도울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나를 질투하며 괴롭히는 이들은 절로 드물어질 터다. 게다가, 내가 도움을 주는 상대방 역시 나의 성공을 바라게 된다. 그래야 자신도 나에게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우(項羽, 기원전 232~202)는 힘세고 싸움 잘했던 천하제일의 장수였다. 그런데도 지혜도, 힘도 부족했지만 친절하게 상대를 배려했던 유방(劉邦, 기원전 247?~195)을 이기지 못했다. “용장(勇將)보다는 지장(智將)이, 지장보다는 덕장(德將)이 낫다.”는 병법의 오랜 교훈은 르네 지라르의 충고와도 통한다. 진정 앞서고 싶다면 상대를 누르고픈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군대란 조직에서 자기 홀로 뛰어날 수 있는 용사는 없다. 최고의 전사가 되는 길은 희생과 배려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F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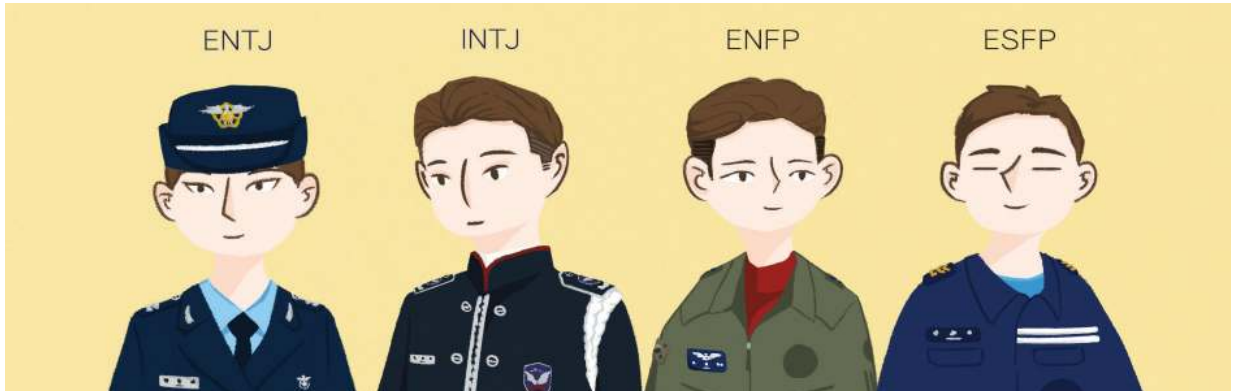
성향 테스트가 요즘 성향

요즘은 소셜채널과 단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중 MZ세대(1980년~2000년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2000년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MBTI를 비롯한 다양한 성향테스트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함께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진행되는 테스트에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성격유형검사인 MBTI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Z세대는 MBTI로 정리된 캐릭터를 개인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인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하면, ENF-T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매칭됩니다. 외향(E), 내향(I), 감각(S), 직관(N), 사고(T), 판단(J), 인식(P)에 따라 서로 다른 수식어를 포함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나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나와 궁합이 맞는 성격유형을 찾기도 하며, 그런 유형의 사람을 찾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타인에 대해 정보적 방어를 하며 접근하는 스타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MZ세대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인 군대의 사회로 진입하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성향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군대라는 조직을 다루는 부분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의 나를 아는 많은 것들과는 달리 좀 더 효율적으로 살게 만드는 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도구로 성향테스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향테스트

군대라는 조직에 있어서도 성향테스트는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나와 다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사와, 성향이 다른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성향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MBTI는 통계적인 부분에 근거하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을 잘 분류해두었기 때문에 서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온 부분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서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입니다.

마케팅 시대, 테스트의 전성시대

온라인상에는 MBTI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테스트지만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서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미요소를 더해 하나가 유행하게 되면 각종 커뮤니티 및 소셜채널에서 삼시간에 퍼져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력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품이 아닌 연관성이 있는 테스트를 통해 인지하게 하는 마케팅 성향테스트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행을 반영한 새로운 카테고리이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플랫폼이 늘어났으며, 실제로 판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MBTI 마케팅이 새로운 형태의 구매, 판매 패턴을 만든 것입니다. 혈액형을 활용한 4분법적 파악을 넘어, 16가지의 성향분석으로 상품군을 형성할 경우 신뢰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새로운 재미와 놀이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향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테스트의 전성시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MBTI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가지는 트렌드를 체험해 보세요. 



글쓴이

교육 브랜딩 전문 '헤이데이 컴퍼니'를 운영하며, 영화 '로맨틱 헤븐' 타이틀 작업, 루미나 컬러테라피 전문가 과정 수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상병 함동경(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다음에는 그 산에 함께 올라가요

2019년 8월을 기억하시나요? 이 달은 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모두 잊을 수 없는 한 달이에요. 입대하던 날, 교육사 강당에서 담담히 계셨지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잠깐의 시간이 지나 청년들이 가족과 떨어져 대열을 이루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한 번 뒤돌아 봤어요. 담담히 계셨던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는데, 방향을 돌리고 싶었지만, 당신의 눈물을 마음에 머금고 대열에 합류했지요. 그 뒤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운 여름날의 훈련소는 상당히 고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간단한 신체동작, 하물며 걸어서 이동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었지요. 유격훈련 도중이었어요. 유격 체조를 하다가 과호흡이 와서 쓰러졌거든요. 바닥에 누워 힘들어하면서, 머리 속에는 가족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눈물이 났어요. 흠바닥에 흘려버린 제 눈물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뚝뚝 떨어졌지요. 1년이 지나서야 이때의 일을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절 걱정하느라 어머니도 힘들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은 마치 기차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훈련소도 무사히 수료하고 특기학기도 마치고, 자대에 가서 상병이 되었어요. 처음 자대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업무, 인간관계, 적응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또 절 걱정하느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눈에는 눈물이, 마음에는 돌덩이가

들어있던 지난 겨울에, 먼 강릉까지 와서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주셨잖아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선임 한 분이 들어오셔서 대화를 하게 되었지요. 선임병사는 저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족에게 말했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임병사는 당장은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아들이 혼자만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겠냐고 말해주었고, 결국은 제 속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지요.

항상 걱정만 안겨주던 아들이 올해 7월에 휴가로 집에 왔을 때, 제가 건강해 보이고, 몸도 좋아졌다며 좋아하셨지요. 많이 기뻐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만 들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등산하러 갔을 때,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복통도 호소하니까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마음이 많이 착잡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휴가로 집에 오면 보문산의 예쁜 단풍을, 겨울에 오면 하얀 설산을 보러 같이 가요.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중이에요. 제 군생활이 흘러가고 제 나이가 늘어 갈수록 부모님의 나이도 늘어가지요. “현재에 충실해라!”, “일을 미루지 마라!” 항상 강조하셨지요.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실천해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뒤숭숭한 세상이 되었어요. 항상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그 산에 함께 올라가요... 

책읽는 공군

글 | 병장 이성산(제16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당신들의 천국』 죽은 세계에서 산 초월을 위하여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인간의 숙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을 동경하던 이카루스도 신성에 닿기 위해 탑을 쌓던 바벨인들도 결국 모두 추락하고 마는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인간들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열망을 품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결정화되어 만들어진 이상(理想)이란 철학적 관념도 대중들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누구나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하지만 그 개념이 내포하듯이 과연 이상이 실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주지 못했다.

그에 대한 작용인지 유토피아(혹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문학작품은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곤 한다.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우리들(예브기니 자마진)’과 같은 현대문학이 명작의 반열에 오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당신들의 천국』은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 근대화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묘사한다. 이야기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실존지소록도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병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조백현 대령은 사회로부터 배척된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슷한 목표를 가졌던 과거 병원장이 환자들을 위한다는 위선하에 외부에 자신의 업적만을 과시하려 했던 배반의 역사가 있었기에 환자들에게 낙원이란 경계해야 할 허상에 불과했다. 조 대령의 노력 끝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환자들 스스로 간척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 조금씩 꿈꾸던 낙원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설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병원장의 독선과 이상화를 두려워하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은 채 이야기는 일단락된다.

작가는 조선일보 이규태 기자가 작성한 르포 ‘소록도 반란’을 바탕으로 『당신들의 천국』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소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작가의 시각 속에서 어느 정도 실재를 재구성했다는 사실이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감명을 받게 한다. 작품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6-70년대 개발독재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근본에 대한 상징으로까지 의미를 끌어올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선의가 현실에서 어떤 반발에 부딪히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거쳐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뇌를 남긴다.

세계는 불완전하며 결핍은 언제나 해소되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렇기에 부조리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는 생물의 필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위의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개인의 욕망만이 우선된다면 어느 집단이든 디스토피아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천국이란 가치가 냉소적으로 타자화된 ‘당신들의 천국’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믿음이 그저 환상에 그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질문을 던져보자. AF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그림 | 강은정 작가

희망의 다이너마이트



“어두운 밤을 내가 밝혀줄게.,” “어디든 계속 가보는 거야.,” “다이너마이트처럼 오늘 밤을 밝혀줄게.,” “밤 낮없이 우리의 하늘은 밝아.” 희망찬 가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Hot 100)’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가수로는 최초이며 ‘핫 100’이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음원 판매량, 유튜브 조회 수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방식인 만큼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들어보면 단순히 신나기만 한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처음으로 모든 가사가 영어로 된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전 세계 모두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실제로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정상에 오른 것도 이들의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보여주었듯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등 사람들은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는 다름 아닌 ‘희망’일 것입니다.

분노와 불신 대신 희망과 웃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듯이, 마음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선 믿음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희망은 사람이 만듭니다.

방탄소년단의 가사처럼 서로가 서로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공군인도 바로 옆의 전우들과 희망을 찾아 나서며 마음 방역에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먼치킨

어렸을 때 내가 보던 만화들은 대부분 ‘성장 스토리’였다. 처음엔 어리숙했던 주인공이 점점 잠재력을 일깨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심지어 성장을 넘어 ‘진화’를 내세우는 만화들도 있었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포켓몬과 디지몬들은 한순간에 전혀 다른 생김새, 전혀 다른 능력으로 진화했다. 성장과 진화, 두 가지 모두 핵심은 같았다. 처음에 약했던 주인공들이 점점 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재미요소였고,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항상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가 더이상 만화를 보지 않을 즈음, 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만화, 영화들이 등장했다. 이 이야기들은 주인공들이 성장하지도 진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인공이 처음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야기들이 다수였다. 이런 캐릭터를 ‘먼치킨’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캐릭터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 상황을 즉시 다 해결했고, 또 어떤 캐릭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눈빛만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도 했다.

이런 스토리를 처음 접했을 때 주인공들이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해서 긴장감 없이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먼치킨 장르 역시 위기와 갈등이 존재했다. 다만 그 위기의 양상이 기존 만화들과 사뭇 달랐다. 기존의 만화들은 ‘능력 부족’이 곧 위기였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무찌를 수 없는 악당이 나타났을 때 위기가 시작됐고, 주인공은 자기 능력보다 한 단계 발전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다. 반대로 먼치킨들의 위기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그 자체였다. 동료들을 납치한 악당의 위치를 몰라서, 누군가의 저주에 걸려

서 등 다양한 이유로 주인공은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서스펜스가 발생했다.

이야기는 현실에서 내가 느낀 욕망을 대변한다. 옛날 만화들은 ‘성장’에서 쾌감을 느끼고, 먼치킨 장르는 ‘능력 발휘’에서 쾌감을 느낀다. 다시 말해 기존의 만화들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성장’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능력 발휘’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았나 후회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또 시대가 변할수록 신입사원들의 스펙, 학력은 높아지지만 업무자율성과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들도 많다. 성장은 입사 전에 이미 이뤄냈지만, 대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군대가 ‘답답한 곳’, ‘지루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청년 장병들이지만 입대하는 순간 경력이 단절된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먼치킨 만화에 등장하는 위기들처럼, 실제로 많은 청년들에게 군대가 ‘위기’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때 더 좋은 군대가 될 수 있다. 군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만큼, 군대 안에서 기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군이 해야 할 일이다. 전 장병이 ‘먼치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공군을 기대해본다.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
/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
/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
/rokaf_offici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공군 인스타 EVENT!

공군 인스타그램에서 펼쳐치는 스토리 퀴즈 이벤트!
공군 유튜브 즐기고, 퀴즈 맞히고, 공군 굿즈 까지 받아주세요!

1

공군 인스타그램
팔로우



2

공군 스토리 확인
*모든 스토리가 퀴즈는 아닙니다



3

링크되어있는 공군 유튜브
영상 확인!



4

퀴즈를 맞히면
응모 완료!





주소 변경, 구독 문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처리도 가능합니다.

www.afzine.co.kr

월간『공군』 E-Book자료관

검색 사이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을 검색하세요.

마음의 소리

E-Book 자료관을 통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엽서로 보내주셨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3월호 부터
E-Book자료관으로 받습니다.

편집실에 하고싶은 이야기, 공군 지면을
통해 전하고싶은 사연을 매월 10일까지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마음의 소리

송승기

songsk20**@naver.com

공군병 247기 항공장구 특기로 제3훈련비행단에서 전역한지 43년이 지났지만 늘 공군인이라 자부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과 조카도 제18비에서 수송병, 비행대대 작전병으로 전역하여 셋이 만나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추억에 젖습니다. 매월 도착하는 월간 『공군』을 받을 때마다 깔끔한 디자인과 서체 디자인 등에서 높은 힘을 가진 잡지임을 느끼며, 각 비행단에서 애쓰는 파일럿, 부사관단, 병사, 군무원님들께 마음 깊이 우려나오는 박수를 보냅니다. ‘추억의 사진전’, ‘보고싶다 옛전우’, ‘라떼는 말이야’ 등등의 코너도 고려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필승!

임호일

kettle91**@daum.net

저는 2003년 공군병 603기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부사후194기로 재입대하여 약 8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군에서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니 가끔 군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청주 비행장 주력기인 F-35A가 창공을 가르면 괜스리 제 마음이 뿌듯해 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월간지 공군도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6페이지의 한권에, 공군의 가치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획특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칼럼을 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 속에 월간 『공군』은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로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처럼 저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오랜만에 경례하네요.필!승!

최영욱

fare1073**@gmail.com

안녕하세요!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예비역 대위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역을 하고 사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군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현역 시절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기에 매월 최신 호가 발간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소식이나 지인의 얼굴이 등장할 때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간 『공군』만한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양질의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시는 월간 『공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군지를 통해 공군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0 9